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초대 말씀에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하면서 미사의 문이 열립니다.

매일 이뤄지는 미사를 통해서 신자들은 영적인 양식을 모시고 삶의 기쁨과 활기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를 통해 미사는 늘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을 느끼며 생활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잔치를 여는 이의 바람은 많은 이들이 모여와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술도, 자리도 많이 마련해둡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다들 바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소를 돌보아야 해서... 혹은 약속이 있어서,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어찌겠습니까?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데 억지로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는 법이니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사도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우리도 초대받고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자주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고민과 걱정, 고통과 어려움, 상처와 상실감으로 하느님께 호소하고 걱정을 털어달라고 하며 합격과 승진을 바라고 상처 준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면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인간적인 모습이 뭐가 나쁘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때 예수님께 엄청난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자 된 입장으로 어떻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혹시나 위험이 있으면 목숨 바쳐 스승님을 지키겠다는 베드로의 말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베드로 사도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은 “너는 인간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사탄이고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미사에 초대받고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나의 고민과 고통과 상처를 드러내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바람과 청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넘어서 때 비로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하자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분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호열 요셉 신부 | 가좌동본당 주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25,6-10ㄱ

화 답 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 독 서

필리 4,12-14,19-20

복 음

마태 22,1-14 또는 22,1-10

곡선 같은 직선, 직선 같은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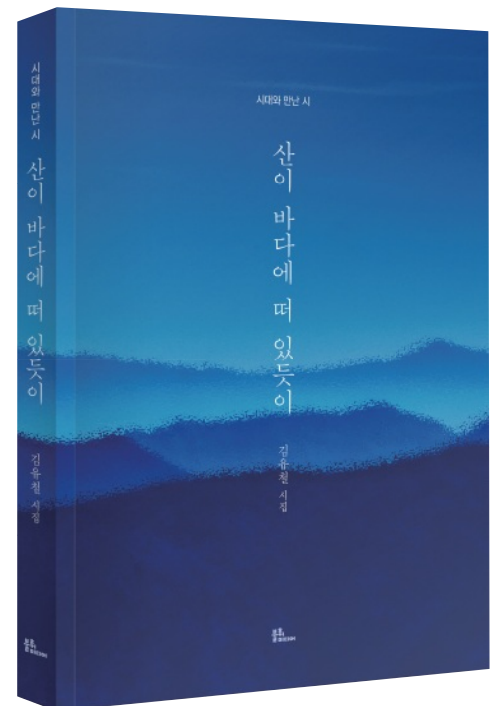
김유철 스테파노 시인/ 가톨릭문인회

어느 날 누군가 툭툭 건드렸다. “시집을 엮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옆구리로 말이 들려왔다. “전혀!”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전혀’는 ‘전혀’ 먹히지 않고 세 번째 시집 『산이 바다에 떠 있듯이』(2021. 불휘미디어)가 되어서 나왔다. 사실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분명히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내 길이 나오고는 했다. 하느님의 손길은 때로는 ‘곡선 같은 직선’이고 동시에 ‘직선 같은 곡선’이기도 했다. 예수님의 붉은 몸이 걸린 십자가를 보면 늘 피하고 싶고 동시에 안고 싶은 마음이 순간 교차한다. 시인이기에 시를 써야 하지만 때로는 시가 나올까 두려워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시대 속에 머물 듯 시도 시대를 비껴갈 수 없었다. 하느님의 손길이 이끄시는 대로 시를 쓰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4·3항쟁,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과 함께 4대강 사업, 제주 강정마을, 용산 참사, 밀양송전탑 등을 시로 썼고, 북녘땅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 순간을 하느님의 손길로서 잊지 않으려 시로 기록했다. 무엇보다 2014년 세월호 침몰 3일 후부터 16편의 연작시로서 아이들과 약속한 대로 그들의 피지 못한 꿈들을 잊지 않으려 기억했고 앞으로도 써나갈 것이라고 시인은 별이 된 아이들에게 말했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이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일은 니네베의 요나가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였다. 그러니 피하려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느님의 손길이다.

시 한 편에 이야기 하나 엮는 일은 기도 속에 담긴 마음과 같다. 그러기에 ‘아멘’이란 신앙고백은 시인에게는 또렷한 마침표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아픔을 역사의 뒤편길에 두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서 생명과 평화로 승화시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전하는 일 역시 ‘곡선 같은 직선, 직선 같은 곡선’의 길이다. 그것이 시인으로서 연필 쥐는 법을 배운 유일한 이유이기도 하다. 시집 『산이 바다에 떠 있듯이』의 제일 끝에 실린 줄시 〈하느님의 출석부〉는 시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기를 머리 숙여 바라본다.

하느님은 사람만 부르지 않는다/ 하느님은 사람을 부르듯이/ 잠자는 동물과 깨어있는 식물/ 검은 구름과 푸른 강물/ 낙타 발자국이 선명한 모래와 말라비틀어진 나무 조각까지/ 잊지 않고 부른다//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부르지 않는다/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부르듯이/ 그대의 걱정과 나의 눈빛/ 함께 걷던 길 위의 마음과 돌아누웠던 술한 날들/ 아프다 말할 수 없던 아픔과 순한 미소 뒤의 눈물까지/ 잊지 않고 부른다// 하느님은 출석부에서 부를 것을 다 부른 다음/ 끝자리에 아직 남아 있는 온기를/ 사랑이라 이름 지어 부른다/ 그대 보이는가/ 사랑이라 불리는 온기가/ “예!” 하고 그대 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끝자리 온기가 지닌 헬썩한 얼굴과 저 가난한 표정을/ 하느님은 사랑이라 이름 지어 부른다// 하느님의 출석부는/ 사람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다





성경에 나오는 물음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물음의 수는 대략 3,300개 정도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중에는 물음에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답이 없는 물음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 대답은 우리 각자가 삶의 처지마다 내놓아야 할 주관식 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는 공부하면서 성경 속의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물음에도 함께하고, 우리도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하면서, 깨달은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물음과 대답을 중심으로 그렇게 읽고, 쓰고 공부하는 성경은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데 또 다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말씀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물음은 물음을 낳으면서 그렇게 말씀과 우리들의 대화는 이어지고 결국은 이해와 묵상과 기도의 폭을 넓혀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물음 중 예를 든 것입니다. 물음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고, 물음이 깨우쳐 주는 배움을 얻어 봅니다.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첫 물음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거역으로 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물음은 아담과 하와, 아니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로 나를 따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것이 너희 뜻대로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되었느냐?” 이 물음은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 줍니다. 잃어버린 양을 있어야 할 제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목자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떠나고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서 회복시키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너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애틍는 소리가 들리는 데도...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사도 16,30)

바오로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 바오로와 실라스는 적대자들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감옥이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이 풀립니다. 둘에게는 탈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러면 간수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 하며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은 그 둘 앞에서 감동한 간수가 엎드려 외쳤던 심오한 물음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이웃의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어떻게 복음 전달의 소중한 계기로 받아들이십니까?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25

고성지역 교우촌 (2)

기록에 처음 나타나는 고성지역 교우촌은 계동桂洞공소다.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의 1888년 보고서에 등장한다. 1887년 6월부터 1888년 5월까지의 사목활동을 본부에 보고한 것이다. 아마도 1887년 성탄 판공을 겸해 고성지역을 방문했을 것이다. 신자 수는 불과 5명. 그러나 예비신자는 13명이다. 당시는 아직까지 드러내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던 시기였다.

특히 1888년(戊子年)은 거제 순교자 윤봉문(요셉) 복자님이 진주에서 순교한 해다. 고성 교우들도 사건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13명의 예비신자가 보고되고 있다. 이전부터 계동엔 교우들이 살았고 신심 깊은 회장들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1886년 한불조약으로 천주교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계동은 계화동桂花洞이라고도 했다. 계화桂花란 계수나무 꽃이다. 향이 강한 은목서銀桂木와 금목서金桂木를 가리킨다. 속칭 천리향 만리향 나무다. 예전부터 계동지역엔 이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안정된 고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계동 교우촌은 어디에 있었을까? 현재의 고성을 기월리基月里에 있었다. 그러니까 계동은 지금의 기월리에 속하는 곳이다. 그런데 기월리란 지명은 1914년 이후 등장했다. 예전에는 이 지역이 신기동新基洞과 신월리新月里로 나누어져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을 하면서 신기와 신월에서 한 글자씩 따와 기월리로 부르게 한 것이다.

한편 신기동은 신기부락 혹은 새터新村라고 했다. 신월리 역시 새리新里 새 동네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 모두 새롭게 뜨는 마을을 뜻한다. 그런데 계동의 예전 이름은 잣골이었다. 평범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잣골이 새터新村 새 동네란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어떻게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었을까? 당시 상황으로 보아 흉년이나 난亂을 피해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철종 이후 官吏의 횡포는 심했다. 중앙정부의 무능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사로 재물을 약탈했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 여기에 천주교인 박해까지 겹치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물론 그 속엔 피난 교우들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가 고성지역에 주저앉으면서 계동 일대를 새터(신기부락)로 만든 것이다. 더구나 병인박해(1866년)와 무진박해(1868년) 후폭풍이 거제도 일대를 강타하자 교우들은 다시 육지로 피신하게 된다. 이때 많은 교우들이 통영과 고성지역으로 피신했고 계동 교우촌에도 합류했던 것이다.

1888년 윤봉문이 잡혀 진주로 압송될 때 이 사건을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에게 알린 사람이 있다. 한인두(韓仁斗 타대오)다. 그의 부친 한필서(韓必西 토마스)는 윤봉문과 함께 잡혔다가 풀려난 교인이다. 한인두 역시 대구로 가는 도중 잡혔다 풀려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대구로 갈 때 고성 기월리에 있는 조재권(趙在權 다윗) 회장 집에서 일박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거제도 복음 선포 경로와 군란기’ 1936년 한덕화 지음.

한덕화(韓德華 모세)는 한인두 아들이다. 그는 거제도에서 문산의 배명학교를 다닐 때 부친과 함께 기월리 교우 집에 머물렀던 기억이 많다고 했다. 기월리 교우들과 거제지역 교우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문산에 있었다는 배명倍命학교는 1908년 2대 주임으로 부임했던 김명제 신부가 설립한 사립 야학교로 본당 내에 있었다.

1913년 기월리공소에선 견진성사가 있었다. 당시 대구교구장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가 방문해 주례했던 것이다. 그만큼 기월리는 알려진 교우촌이었다. 현재 이곳 남쪽 기슭에는 고성본당 묘원도 있다. 기월리에선 마산교구 사제 세 분이 배출되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6

서성민 미카엘 신부(문산본당 주임)

심신이 괴롭고 지칠 때 나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들면, 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소 순례를 도전해 보았습니다. 23년 공소 순례를 마무리하면서 그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 공소 순례를 하면서 새롭게 묵상해 본 것들이 있어서 나누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순례를 하였습니다. 순례 책자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바치고, 아주 짧은 시간 묵상을 한 뒤, 다음 공소로 향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찍먹’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공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꼭 담기지 않고), 아주 짧게 머물고(찍어 먹고) 갔다는 것입니다. 잠깐 시도해 본다는 의미로 ‘찍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공소 순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찍어 먹는 공소 순례를 했기 때문에 이번 23개의 공소를 전부 순례하는데 긴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설레설레 순례를 해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삶이 저의 삶을 성찰하게 이끌어주었습니다. 공소 순례 책자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문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님의 삶을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2년 동안 홀로 우리나라의 약 120여 곳의 교우촌을 다니며 사목하는 사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혼자서 조선 교회를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당시 조선 후기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극복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최양업 신부님을 열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학교 학부 3학년 때, 한국 교회사 수업이 있었습니다. 숙제로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와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를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편지를 읽고 느꼈던 것은, 내가 훗날 사제가 되어서 열정이 떨어지면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마음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책꽂이에 꽂혀 있는 두 책을 볼 때마다 떠올렸던 것입니다. 제 삶은 사제로서의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책을 보았음에도, 과거의 결심에 따라서 그 책을 읽고 마음을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돌밭(마태 13,20-21)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극이 나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주님의 뜻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완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공소 순례는, 순례를 통해 그 공동체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찍먹’ 공소 순례는 올바른 공소 순례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번 공소 순례를 통해서 제가 좋은 땅으로 거듭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전과 새로움을 받아들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구원을 향한 저의 여러 새로운 시도들은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이강해(스테파노) 신부
2012년 10월 19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영식(알로이시오) 신부
2019년 10월 19일

故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4주기 추모미사

일시: 10월 19일(목)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미사 후 시민사회단체 추모식 진행합니다.

견진성사

일시: 10월 22일(주일)
장소: 삼천포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사무장연수

일시: 10월 17일(화)~19일(목) 2박 3일
장소: 인천교구 성지

재무평의회

일시: 10월 17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성소육성회 정기총회

일시: 10월 22일(주일) 10: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모집: 사무직(번역: 0명, 행정 사무 등: 0명)
제출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접수: 10월 20일(금) 14:00 마감 서류함께 제출
(전화 문의 사절)
E-메일 문의: mano@cbck.kr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미사

일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0:00
장소: 신안동성당/ 문의: 055-745-5131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제26회 학술발표회

주제-새로운 만남: 다름의 공존
일시: 11월 9일(목) 10:00~17: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남평)
주최: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 광주인권평화재단
문의: 061-339-2231(연구소)/ 061-337-2181(대학본부)
▶참가하실 분들은 10월 31일(화)까지 유선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 포콜라레 EXPO & 창설 80주년 감사미사

●포콜라레 EXPO
일시: 10월 28일(토) 13:00~18:00
10월 29일(주일) 10:00~18:00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회비: 1만 원
접수: http://expo.focolare.or.kr
●포콜라레운동 80주년 감사미사 및 기념식
일시: 12월 9일(토) 14:00~17:00
장소: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자세한 내용은 www.focolare.or.kr 참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섬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일시: 11월 3일~5일/ 11월 7일~9일/ 11월 11일~13일/ 11월 17일~19일/ 11월 23일~25일/ 11월 27일~29일/ 12월 8일~10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2024년 일정은 아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제2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일시: 12월 17일(주일) 10:30~17:00
장소: 부산가정성당
대상: 혼인을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 신자로 33~45세(1990~1978년생) 미혼자
(2022년 제1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참석자 배제)
접수: 11월 26일(주일)까지, 선착순 남녀 각 30명
문의: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1

가톨릭여성회관 개관 47주년 민들레축제 '기다림과 열매'

●민들레주점

일시: 10월 20일(금) 11:00~22:00
장소: 가톨릭여성회관
문의: 가톨릭여성회관 055-255-5080

●부대행사

▶한울학교 노인대학 작품전시
▶마산지역자활센터 생산물 홍보

10.29 참사 1주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

일시: 10월 23일(월) 19: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주례 및 강론: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주최: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055-249-7168, 010-2759-4178

성체신심세미나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와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교구 성령쇄신봉사회에서 성체신심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23일(월)~12월 11일(월) 매주 월요일 19:00~22:00-8주간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이병주(시몬) 신부/ 이청준(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황미란(로즈마리) 수녀/ 마진우(요셉) 신부/ 장훈철(바오로) 신부/ 박상운(토마스) 신부/ 황병석(파스칼) 신부/ 최봉근(디도) 선교사
문의: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10-5247-9900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0월 16일(월) 19:00	중앙동성당	천국의 열쇠장수	박대성 니콜라오(교구 선교위원교육강사)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월 21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	---	---	---

하느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나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길

신뢰,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

신뢰는 내적 기쁨을 누리고 충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신뢰,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에서 안셀름 그륀 신부는 신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하느님에 대한 신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을 신뢰해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고, 이 둘은 더 심오한 근원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스스로에 대한 자기 신뢰가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두려움, 관계, 불신, 의심, 믿음, 희망, 사랑 등과 결부시켜 심도 있게 조명한다.

또한 저자는 자신이 일군 영성과 풍성한 체험, 영적 동반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과 영적 전통, 성인, 신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시인의 말을 빌려 신뢰라는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통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과연 신뢰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나 자신과 타인과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더불어 실천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서 소중한 가치이자 소통의 열쇠가 되는 신뢰에 대해 한층 더 깊이 묵상하고, 신뢰를 키우고 강화하여, 신뢰가 깃든 풍요로운 삶을 많은 독자가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 지은이: 안셀름 그륀
- 옮긴이: 황미하
- 출판: 성서와함께



- 지은이: 조경자 수녀
- 출판: 바오로딸

고구마도 꽃을 피워 생존을 대비하는데...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

수도회 장상으로부터 생태영성을 살라는 소임을 받고 강화도에서 생태영성의 집을 운영하며 12년 넘게 비료와 농약 없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조경자 수녀.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선 수녀님은 수없이 검지를 호미로 찍으며 밭일을 하면서 마침내 우리 시대의 가난한 이는 흙이요 작물들이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흙을 하느님의 자취가 숨 쉬는 터전으로 받아들인 날, 하느님께서 자신을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된 날처럼 행복했다고 한다. 흙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땅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이만큼 걸어오게 되었는지 묻는 많은 사람에게 그저 한 발짝씩 걸어왔노라며 자신의 체험을 나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 갔을 때, 생전 처음 보는 일이 생겼다. 고구마 줄기에서 보랏빛 꽃이 피어난 것이다. 너무 가물다 보니 땅속에서 열매를 키워내기 힘들어진 고구마가 씨앗으로라도 번식하려 꽃을 피운 것이다. 수녀님은 지금이 우리에게도 이런 생태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겪는 요즈음, 고구마에게 일어났을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는 잘 못해요! 그런데 내 몸은 고해성사처럼 다 말할 수 있어요!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사목센터장

지난 9월 10일, 이주민센터에 200여 명의 이주민들이 창원경상대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을 만나러 왔다. 한 국말도 어설피고,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용이 부담스러운 탓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서 ‘미충족 의료상태’에 놓여있던 이주민들은 몸으로 이야기했다.

매 주일, 말끔히 차려 입고 미사를 참례하러 찾아온 이들의 감추어진 몸은, 여태껏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고장 난 몸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 땅에서의 삶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 사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어렴풋이 그들의 노고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성체를 받아 모시려고 20대 청년들이 내민 손은 나무껍질처럼 딱딱한 군살이 배겨 있었다. 때로는 상처 나고, 기름때와 흙 때가 지워지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안아 모시기가 부끄러워 수줍게 손을 내밀었다. 고해소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생존을 위한 거친 삶의 현장에서, 거룩히 살지 못했음을 드러내곤 했었다. 하지만, 이번 의료봉사 때는 여태껏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단했던 육체가 살려 달라고 드러내놓고 애원하였다. 그들의 몸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를 나눌까 한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가 가속되었던 우리의 시간은 가혹하게 우리의 엄마, 아빠들을 노동하도록 시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 의료실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병상수와 입원/외래환자, 장비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양병상수는 OECD 평균치에서 8.7배나 높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유도 있을 것이나, 시대적으로 이해해 보면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달리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서 ‘골병’이 든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잘 먹지도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희생한 결과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재활, 정형, 신경외과, 통증의학 전문병원이 밀집하고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노동강도가 높았던 분들이 거주하는 곳들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부의 상징과 같은 ‘강남’이란 곳은 병원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각각 288개와 123개로 가장 많으며, 정형외과 27개로 ‘골병’든 분들을 고치는 병원은 숫자상 최하위이다. 이에 반해, 경상남도는 내과 다음으로 정형외과 107개로 가장 많고 성형외과가 24개로 최하위이다. 진료과목의 분포가 우리 지역의 ‘골병’든 사람들의 숫자를 가늠케 한다. ‘골병’드신 어르신들의 희생이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안락함의 씨앗이기에,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제, 이 어르신들의 ‘희생’의 자리를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고학력의 청년 세대들은 현장 근무직보다 사무직을 선호하며, 경남의 청년 137만 명이 부산과 서울 등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100만 명을 겨우 넘는 창원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전국 산업단지의 규모를 보았을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한 경남지역에서 일꾼들이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때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실상은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산업현장을 유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노동의 원칙이 있으나, 국민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은 주·야간 근무교대로 12시간 정도를 노동 현장에서 보낸다. 본국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노동의 강도를, 먹고살기 위해서 버티어 내는 것이다. “우리도 못 살 때, 다 그렇게 힘들게 일했어!”라고 말씀하신다.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한다. 그래서, 우리네 어르신들은 ‘골병’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그 희생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이제, 그 ‘골병’의 순환고리를 넘겨받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는 없을까? 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날, 온몸으로 고해성사를 한 이주노동자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과 함께한 거룩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